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14, 여호수아 9장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14회기,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조약입니다.

좋아요, 이 섹션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은 제가 아마도 그것을 기브온 조약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 섹션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것은 책의 행동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첫 번째 전투 세트는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6장~8장, 9장~11장)입니다.

이 각 장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왕들의 연합이 나옵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10장에는 남쪽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1장에는 많은 북부 왕들의 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장의 통일된 맥락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오는 적 왕들의 연합이며 그들은 그것을 처리하고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는 특히 10장의 끝과 11장에서 더욱 공식화되고 요약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우리는 여리고나 아이에서 볼 수 있는 세부 사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9장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논의의 앞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명성이 그보다 앞서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라합은 2장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집트인들과 시내산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는 그곳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두 경우에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요단 저편 산간 지방 해변과 레바논 쪽으로 향한 저지대 등에 있는 모든 왕이 2절에 이르되 곧 그들이 듣고 그리하여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대해 들었을 때 두려워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 즉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취약함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에 이르렀으나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왕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왔습니다.

왕이 듣는 이 모티브는 2장 9절부터 11절, 5장 1절, 9장, 1절, 9장 3절에도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듣고 나서 다른 행동을 했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여호와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판이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 전체에 걸쳐 스레드를 실행하는 스레드입니다.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내용에 반응하여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9장 1절과 2절에서 다른 왕들이 행한 일과, 후대의 왕들이 10장과 11절에서 행한 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도 계속해서 교활하게

행동하였다.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낡고 찢겨진 자루와 포도주 부대를 가져가서 가져가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관습,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관습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오경의 두 구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는 출애굽기 34장 11절과 18절에 있는데,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구절은 신명기 20장, 특히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 구절을 다른 맥락에서 한두 번 살펴보았지만 이것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는 가나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는 중간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치러 가까이 가면 화친을 맺으라. 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갑옷을 칼로 쳐 죽이는 등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의 성읍들을 네게 기업을 주시는 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의 성읍들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헛 족속과 아모리 족속 등을 완전히 진멸하여 진멸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그들의 가증한 행위 등을 좇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요점은 가나안 내의 성읍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멸망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꽤 명확합니다. 9장 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호수아가 아이 성

여리고에 행한 일, 가나안 족속을 대패한 일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차려 입고 식량 등을 가져와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진에 도착한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6절). 길갈을 처음 접한 곳은 할례를 행했던 여리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요단강 건너편인데,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 애굽의 치욕을 굴러가다라는 갈랄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그것은 중요한 장소이지만 구약성서에는 길갈이 한 곳 이상 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아래가 아닌 중앙 산간 지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지나간 곳과 같을 것이며, 길갈 사람이 한두 명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개가 있습니다.

이는 중앙 산지에 있는 것이라 6절에 이르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제 우리와 언약을 세우라 하느니라. 요점은 우리가 금지령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이 파괴해야 할 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절에서 너희가 우리 중에 살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이 먹을 양식을 모두 보여 주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빵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져왔을 때도 여전히 따뜻했어요.

이제는 낡고 부서지기 쉬우며, 포도주 타래도 새 것이었지만 이제는 낡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매우 교활하고 교활한 속임수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 반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게 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결점은 14절 끝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시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속았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속임수가 충분히 영리하고 현명했다면, 그것은 그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심할 여지없이 '아니요, 이들은 지역 주민이므로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이 시점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기서 적절한 리더십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그가 하지 않는 곳 중 하나이며, 그의 지도력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로 한 이 합의의 결과로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합의는 여호수아가 15절에서 그들과 화평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맹세, 즉 언약을 맺는다는 개념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도 매우 근본적입니다. 이것은 뭔가, 엄숙한 일이고, 계약을 맺은 일이고, 가볍게 깨뜨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이요 그들 중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되었느니라. 18절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로 맹세하였음이니라. 나머지 장에서는 그 여파를 보여주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를 속였습니까? 22절,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날에 그들로 회중 앞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길는 자와 여호와의 제단을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래서 책이 쓰여질 때마다 몇 세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은 또 다른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서에 살아남은 세 그룹의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피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에 근거한 라합입니다. 두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기만에 근거하여 다른 각도에서 보였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족이든지 자신들의 영토에서 쫓아낼 수 없었던 모든 민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수 계열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신약성서의 믿음의 전당에 속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약 천년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3장을 펴면 거기에 언급된 기브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지금 여기의 문맥은 약 천년 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유배된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총독 곧 바사 왕의 위임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부근 유대 지역의 총독이 되리라 하더라. 그는 정치적, 행정적 지도자이자 영적 지도자이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돕는 일 중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두가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신이 사는 곳 건너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모든 사람들을 제공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21세기 사람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이름도 그 모든 것을 모릅니다. 이 긴 목록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군인이나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의 명단이 있는 미국의 한 작은 마을 마을 광장에 있는 기념물이 생각나는군요. 그러나 이는 사람, 후손 및 기타 사람들이 이름을 존중하고 이러한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개인들의 명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명단의 중간에 7절을 보십시오. 이전 명단 다음에는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낫 사람 야돈이 보수했습니다. 기브온과 미스바와 그 지방 총독의 소재지 등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사실 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유대인들,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무꾼이나 물 길는 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삶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 이제 천년이 지난 지금 그 삶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또한 같은 책 7장에 있는 느헤미야 7장의 또 다른 짧은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에 70년, 50년, 70년 가까이 머물렀다가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목록에서 누구 누구의 아들과 그들의 후손이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아델의 아들들, 즉 히스기야의 자손 중 9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22절 하숨 자손이 328명, 베새 자손이 324명, 24절 하립 자손이 112명, 25절 기브온 자손이 95명이다.

그래서 다시 천년 후에 유대인으로 여겨졌던 기브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 중 95명이 이제 돌아온 포로들 아래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은혜로우셨고 그들도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 그들의 몫을 다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이것은 14회기, 여호수아 9장, 기브온 조약입니다. ♪♪♪